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소통리더십, 절집안 도입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이상 쇠고기 금지 협상'과 '대운하 건설의 사실상 포기' 등을 밝히며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은 이른바 '명박산성'이란 소통(疏通)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한편,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의 경쟁력회중에서 시달리는 동안,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프리허그(free hugs: 안아주기), 세척식(洗足式), 호프 데이 등 감성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오프라인 스킨십을 강화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e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량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CEO들의 '소통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원 합의제의 의결 구조인 대중공사(大衆公事)의 전통을 이어 온 절집안의 '소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극히 부정적이다. 정치권에 혼수를 두기가 민망할 정도로 중언부언 '불통'으로 인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태고종은 총무원과 보수승가 회화의 갈등으로, 진각종은 현 집행부와 前 통리원장측과의 힘겨루기로, 조계종 선학원은 기획이사 법인 스님과 총무이사 철오 스님측으로 이사회가 양분

되어 혼역을 치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단 내분이 밖으로 종권(宗權) 다툼으로 비쳐지고,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데 있다. 게다가 상호간의 공방과 소송 등으로 인력과 삼보정재가 소모되다 보니 수행·포교란 본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태고종과 진각종은 소송과 분규 등으로 종단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사회적인 포교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반면, 천주교의 중앙집중체제와 승려 노후복지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전태종은 인사분란한 리더십으로 나날이 사회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별빈(別飢)도침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양보와 합의점을 도출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조(佛祖)의 혜명(慧明)을 이어온 절집안에서 마음과 마음에 장벽이 생긴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교단 내부에서부터 중도·화쟁(和靜)의 소통리더십을 발휘해 불자들을 바르게 이끌고,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안심(安心)과 희망을 주는 거룩한 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길 삼가 기원한다.

한국 '전통사찰' 을 관광상품으로

문화사업단 '33 관음성지' 순례상품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곳도 추가로 지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장준이 전 통사찰을 활용한 관광포교에 나섰다. 불교문화사업단은 6월 18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고 '한국33관음성지순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33관음성지순례는 매년 8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33관음성지·88관음성지 순례에서 착안해 내놓은 관광상품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일본 관음성지 순례객에게 한국 관음성지를 소개, 한국 방문자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한국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본 방문객들에게 우리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우선 서남권, 남부권, 동남권, 동북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관음성지를 선정했다. ▲서남권은 강화 보문사·서울 조계사·화성 용주사·예산 수덕사·공주 마곡사·보은 범주사·김제 금산사·부안 내소사·고창 선운사·장성 백양사, ▲남부권은 해남 대흥사·여수 향일암·순천 송광사·구례 화엄사·하동 쌍계사·남해 보문사, ▲동남권은 부산 범어사·양산 통도사·경주 불국사·경주 기

림사·합천 해인사·김천 직지사·대구 동화사·영천 은해사·의성 고운사, ▲동북권은 삼척 신흥사·양양 낙산사·평창 월정사·영월 법흥사·원주 구룡사·여주 신륵사·서울 봉은사·서울 도선사 등이다.

성지순례는 3박 4일 또는 4박 5일 코스로 영역별로 짜여져 있다. 일정 중 하루는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진행되며, 33개 사찰 완주자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소원성

취 기념품이 제공된다.

순례자 서비스 개발, 관음성지 유지 관리 등을 맡게 될 불교문화사업단과 관광공사의 올 모객목표는 3000명. 내년부터는 5000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성지순례 시행에 앞선 8월 6~9일에는 100명 규모의 일본 순례단이 방한, 동남권 사찰을 대상으로 사전답사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곳을 추가 지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사찰은 서울 진관사·금전사, 경기 가평 백련사·남양주 묘적사, 충남 서산 서광사, 충북 단양 구인사·진천 보탑사, 경북 구미 도리사·영덕 장유사, 경남 창원 성주사·합양 벽송사, 대구 동화사·유가사, 전북 고창 선운사·무주 안국사, 전남 화순 쌍봉사·함평 용천사, 광주 중심사, 제주 관음사·법화사 등이다.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진경스님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해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회당학원 21대 이사장 진각종 혜정 주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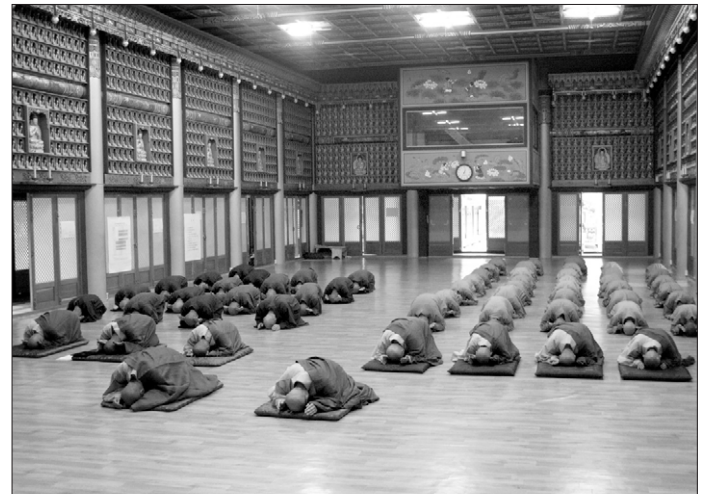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 21대 이사장에 진각종 유가심인당 혜정(崔鍾中) 주교가 선출됐다.

회당학원 이사회는 6월 16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내 통리원장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에 前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를 선출했다.

서울 진선여중·고, 대구 심인중·고교, 경주 위덕대 등 회당학원 산하 학교를 이끌게 된 신임 이사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회당학원 이사회와 설립종단인 진각종 및 학원 구성원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학교발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1975년 유가심인당 교회를 시작으로 중의회 의원과 진선여고 주임 정교, 회당학회장, 그리고 교육원장과 진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제35기 행자교육 시작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6월 18~22일 월정사에서 서울·경기·강원 교구본사 행자교육을 실시(사진)하는 등 제35기 행자교육을 시작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태안 피해지역에 지원금

사찰·단체 등 성금 모금...장학금·생계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은)는 6월 15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충남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학생 및 주민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총 1억 2171만원으로 종단 산하 사찰 및 단체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학생 100명의 장학금(초·중·고 학

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과 피해가정 2437가구(가구당 37만원)에 대한 생계비로 각각 지급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 진태구 태안군수, 이용의 태안군의회 의장, 수덕사 및 태안군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30여명 등과 태안군 피해가정 주민 및 불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종회 승려노후복지특위 3차회의 개최

"전담기관 설립 先과제"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관 설치, 법령 및 제도 정비, 재정조달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됐다.

조계종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회의를 열고,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등의 개요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월정사 박재현 총무실장은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현황과 정책과제'란 발제를 통해 "승려노후복지사업이 시행되려면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한 법안행태의 재단설

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승려노후복지 관련 수익금 사업, 기금 운용, 재정 우량사찰 종단목적사업담당금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은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국가복지제도의 고찰'이란 주제발제에서 국가복지제도로 승가노후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노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적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동환(前 KBS동아리)촬영감독, 강민태 영상학 강사

이사회 파행에 대한 재단의 입장

근간에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선학원 이사회가 파행으로 일관되고 있는 사태를 걱정하는 사부대중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일부 이사스님이 재단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 수 없기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921년 설립된 이래 80여 년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제 과거로부터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학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에 일부 이사스님들의 사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이사회의 파행은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이 자정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보를 포장하고, 개혁이란 말로 자신들의 뜻을 숨긴 채 왜곡된 진실로 대중을 선동하며 그 뒤에 숨어 자신들의 목적인 바를 취하려 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철오스님은 당시 재단법인 선학원의 총무이사로서 직책이사 일괄사퇴를 결의한 재단의 총무

회의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정관 14조와 15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법적인 이사회로 날조하여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오스님은 논의와 화합을 통해 대중공의를 중시하는 재단법인 선학원 정관을 교묘히 이용해 이사회 파행을 주도하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파당을 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정사를 비롯한 공사찰의 감사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마저 부정하고 오히려 외부감사를 주장하며, 선학원을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모아놓은 축소판' 이라는 등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은 더 이상 재단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게 소집된 4차례의 이사회를 불순한 의도로 불참하여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철오스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스님들은 당당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로서 책임 있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2008. 6. 17.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도형